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변인 연구

A Study on extramarital involvement of Married Men and the related variables

이영화* · 이영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Young Hwa Lee · Yeong Sug Yi
Kunsan Nat' 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s and related variables of extramarital involvement among married men. Subjects were 248 married men who completed a questionnaire about the concept of extramarital involvement, extramarital sexual experience, 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variables(self esteem, impulsiveness and openness), marital variables(marital satisfaction and sexual satisfa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who thought extramarital involvement meant intimate relationship including sexual intercourse and the group who did not.

Second, rate of married men who had engaged in extramarital involvement was higher by 19.0 percentage points than rate of those who had not.

Third,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arital period, impulsiveness, open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sexual satisfaction influenced men's extramarital sexual experience. Among these variables, sexual satisfaction proved to be the most influencing factor.

Key Words : extramarital involvement, impulsiveness, openness, marital satisfaction, sexual satisfaction

I. 서론

일부일체제 사회에서 부부관계는 배타적인 성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가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이외의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일은 그리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흔하다. 최근 한국성과학연구소(2003)가 서울·경기 거주 기혼남성 2천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섹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8%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혼외관계가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1990년대 후반부터는 혼외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증가되어 '결혼 밖의 성(性)과 사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혼외관계는 대부분의 부부에게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가족해체의 중요한 요인(양옥경 외, 2005)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여성들이 과거의 여성들에 비해 부부간의 친밀감과 평등성,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부정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81년~2004년 동안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사유를 조사한 결과(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4),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은 이혼 사유 중 2위(1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외관계가 결혼생활적용에 매우 부정적으로 판

* Corresponding author: Young Hwa Lee
Tel: 063) 469-4628, 011-653-2416
E-mail: yhlee@kunsan.ac.kr

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외관계는 결혼의 규범을 넘어서는 '일탈'이 갖는 민감성으로 인해 연구대상과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드라마나 영화, 소설의 소재로서 이용되어왔을 뿐 학문의 대상으로서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진 경우는 드물다. 종종 여성관련 월간지 등에서 혼외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는 말초적이고 피상적인 정보제공에 국한되어 실제의 혼외관계의 실태나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외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외관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며, 혼외관계의 실태와 그와 관련된 특성들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혼외관계는 법률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외관계가 광범위하게 용인되어 왔으며, 특히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는 더욱 관대하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천주현, 1993) 기혼남성이 혼외관계에 연루되어 있는 정도는 심각하다. 이는 혼외관계에 대한 몇몇의 보고에서 남성의 혼외관계가 여성의 그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남은주, 1998; 한국성과학연구소, 2003)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에 초점을 맞추어 혼외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혼남성이 인식하는 혼외관계의 의미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혼외관계 경험유무를 조사한 후,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개념인식은 어떠한가?
2.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은 어떠한가?
3.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관련문헌의 고찰

1. 혼외관계의 개념

혼외관계를 의미하는 또는 혼외관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는 '바람', '간통', '외도', '불륜' 등이 있다. 이들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부부가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외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연구마다 나름대로 정의하여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혼외관계 개념에서 구분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지이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구분해보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나 정서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성적 관계에 정서적 관계도 포함시키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간통의 개념을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였으며, 천주현(1993)과 구명숙(2001)의 연구에서도 혼외관계를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양다진과 조희선(2005)이 내린 혼외관계 개념 역시 위의 선행연구와 같이 혼외관계의 개념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그동안 혼외관계라 하면 주로 성적인 면이 부각되었고, 또 성적인 면이 없다면 혼외관계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서적 혼외관계 역시 성적인 관계만큼 결혼생활에 위협적일 수 있다. Harley(1999)는 정서적 혼외관계로 깊이 빠지게 되면서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정서적으로 몰입되어 있다던가, 언어적이든지, 비언어적이든지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혼외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에서 실제적인 성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대화나 분위기가 농후한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성적인 기능이 잠재되어 있고 성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양다진·조희선, 2005 재인용). Lawson의 연구에서도 미국인 응답자의 40% 이상이 성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 스스로를 혼외관계 경험자로 간주한다(천주현, 1993 재인용)고 보고한다. 이처럼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정서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혼외관계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부간의 정서적 교류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실 혼외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혼외 성교만을 혼외관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성적인 편견이 반영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결혼문제와 혼외관계의 실상을 잘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Glass와 Wright, 1992) 정서적 관계의 중

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혼외관계 개념을 성적 관계 또는 정서적 관계 어느 한쪽만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성적인 관계와 정서적 관계를 모두 포함했을 때를 혼외관계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김예숙, 1995; 남은주, 1998)는 혼외관계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이성과 육체적 관계 및 정서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 전요섭(2002)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유무를 떠나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긴밀한 감정적 교류 또는 성적 관련을 맺는 것”으로 혼외관계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져 남녀가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현 사회적 상황에서 결혼한 남성이 정서적인 관계만으로 그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을 고려하고 또,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이지만 성적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관계에 미칠 불안정성이나 배신의 의미가 대체로 적기 때문에(Brown, 1991) 기혼남성이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혼외관계의 기준으로 삼고 관찰하고자 하였다.

2.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

혼외관계 경험은 매우 사적인 부분인 점 때문에 현재까지 혼외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혼외관계라는 개념도 없었던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 사이에, 미국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성 보고서인 킨제이 보고서는 남성 표본대상자 6,427명 중에서 약 3분의 1이 혼외관계 경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표본대상자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혼외관계 행위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킨제이는 통계 숫자가 사실보다 낮은 편이며, 아마 모든 미국 남성의 약 절반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혼생활 동안에 혼외관계를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이 매춘여성과의 관계를 제외한 혼외관계 경험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기혼남성의 20%와 기혼여성의 1%가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한 일간지 조사(중앙일보, 1997. 1. 5)에서는 서울지역 50대, 60대 남성들의 68.5%가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조사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2000년 1년간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만 4천여 건의 상담 사례 중 남편의 외도가 18.09%로 전체 상담사례 중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1. 3. 19). 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성에게 ‘지금까지 혼외정사의 상대가 몇 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2~4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5~12명이 27%, 1명은 1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동아일보, 2001. 3. 14).

한국성과학연구소(2003)에서는 서울·경기 거주 기혼 남성 2천 명을 대상으로 혼외관계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섹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8%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97년 조사 때 72.9%에서 5%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한 배우자 외에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섹스파트너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15%, ‘없다’가 78%로 조사되어, 한국 남성 20명 중 3명가량이 혼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관한 자료가 보여주는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 시기와 대상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혼외관계를 가리키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제각각 달리 전달하거나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외관계를 조사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3. 혼외관계 관련 변인

1) 사회인구학적특성 변인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른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종교, 결혼기간이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소득수준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가져다주는 자유가 부부의 공동 활동이나 관심을 분리시키고 결과적으로 혼외관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영숙 외, 2000). 그러나 소득수준과 혼외관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과 양다진·조희선(2005)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의 높고 낮음과는 관계없이 혼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는 달리 천주현(1993)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혼외관계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변주혜(2002)도 외도 상상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외도에 대해 더 많이 상상을 한 것으로 밝혀 소득수준과 혼외관계가 관련될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소득수준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과 혼외관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도 선행연구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간통실태 연구에서는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 조사된 보고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혼외관계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양다진·조희선, 2005). 한편, 기혼남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허용적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양다진 외 2005, 재인용). 이러한 허용적인 성적 가치관은 성적인 혼외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데(변주혜, 2002 재인용), 즉 혼외관계에 대해 '상관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76%가 혼외성관계 파트너를 가진 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10%만이 혼외성관계 파트너를 갖고 있었다(Morgan et al., 199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 허용적인 성적 가치관과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그것이 성적인 혼외관계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을 보인다.

또한 종교와 혼외관계 경험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없을 때 혼외관계 경험이 높게 조사되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고기숙, 2005) 그러나 양다진과 조희선(2005)의 조사에서는 종교와 혼외관계 경험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기간의 경우 결혼기간이 길수록 혼외관계 경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남은주, 1998; 양다진·조희선, 2005). 즉,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부부간의 친밀도가 높아져 우애적 관계가 되기보다 왜곡된 관계로 진행되어 결혼생활의 문제가 혼외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 중의 하나로서 결혼기간을 들고 있다.

2) 개인적특성 변인

혼외관계는 따뜻하고 친절하며 개방된 사람들도 경험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무디고 위축된 사람들 역시 혼외관계를 경험한다(McGinnis, 1981). 이러한 보고는 혼외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혼외관계의 특성이 각기 다를 뿐 혼외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이 혼외관계 경험 유무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도덕성, 성 개방 등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으면서도(Shachkelford and Buss, 1997; Treas and Giesen, 2000; 이영숙 외, 2000) 그 결과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혼외관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된 변인 중 자아존중감, 충동성, 개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오정옥, 2001). 또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로서 자

신의 성격, 능력, 소질, 적성 등에 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자기이해라고 할 수 있다(양다진 외, 2005 재인용).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은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도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되며,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학대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오정옥, 2001)고 하였다. 이들은 혼외관계를 통해 자기 의심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신감 회복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이영숙 외, 2000), 이는 자아존중감과 혼외관계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혼외관계 경험유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 특성과 혼외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McGinnis(1981)는 자신이 사랑 받을만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갈망하는 사람이 혼외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자아존중감과 혼외관계 경험은 역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나, 국내의 결과는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양다진·조희선, 2005) 외국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충동성은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성격특성으로, 충동성이 강한 사람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부주의한 의사결정을 하며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White·Moffit·Caspi·Needles·Stouthamer-Loeber, 1992). 또한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은 무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반응은 빠르지만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수경·강해자, 2006). 즉, 충동성은 활동의 제지능력 부족, 직접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의 추구하고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탈선적이고 활동지향적인 행동을 통해 정서적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정태연, 1992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에서 유추한다면 충동성은 혼외관계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개인내적인 특성이다. 충동적인 사람들은 혼외관계의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어렸을 때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쉽다. 또한, 그들은 책임감 없이 일시적으로 혼외관계에 심취하고는 금방 그 관계에 실증을 내고 또 다른 관계를 찾는 생활을 계속한다(이영숙 외, 2000). 이러한 충동성은 혼외관계 가능성을 보이는 변인임에도 선행연구에서 혼외관계 경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양다진·조희선, 2005)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개방성은 새롭고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불안감 없이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새로운 정보의 입력을 최대화하거나, 현존하는 질서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보의 입력을 최소화하는 적응 전략의 한 차원(김애순, 1993 재인용)이다. 이러한 특성은 혼외관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성격 특성들로 지적되고 있는 흥분, 모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한 성격과 관련이 깊다. 관련 문헌에 따르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매우 창조적이고 개방적이며, 활발하여 이러한 특성이 낮은 사람보다 혼외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더 가지며,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연인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 하고 혼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이영숙 외, 2000 재인용)고 한다.

3) 관계적특성 변인

혼외관계의 원인은 부부생활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Harley, 1999) 부부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 때문에 혼외관계를 경험한다고 한다. 즉, 결혼생활에서 기대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것의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혼외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혼외관계 상대에게 철저히 이상화된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이영숙 외, 2000)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그것 자체로 혼외관계와 관련된다(Brown, 1991; Vaughn et al., 1995). 실제로 혼외관계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고하는 경향이 낮다(변주혜, 2002 재인용). 혼외관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혼외관계와 부부간의 불만족과 무관하다고 했으나, 이후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남성의 경우는 혼외관계가 없는 남성보다 혼외관계가 있는 남성이 결혼생활 내의 성적 만족, 부부간의 적응도가 낮음을 밝혀(천주현,

1993 재인용) 혼외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 혼외관계 경험과 현재혼외관계 경험을 나누어 살펴본 양다진과 조희선(2005)의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따른 결혼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남성은 결혼생활과 관계없이 혼외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 국내와 국외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관련문헌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서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를 지적함으로써(이영숙 외, 2000)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만의 씨앗이 자라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 중 일부가 혼외관계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에 대한 기쁨이 적어지면 성은 또 하나의 논쟁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성은 부부갈등과 나아가 혼외의 성문제로 발전하기 쉽게 된다. 변주혜(2002)의 연구에서는 혼외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높은 성생활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남은주(1998)는 남녀의 의도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혼외관계를 통해 남성은 성적 만족감을 얻었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남성의 혼외관계가 성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3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2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62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248부가 유효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248명의 연령분포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30-40대가 198명(81.5%)으로 대부분이었다. 소득수준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		
구분		N(%)	구분		N(%)
나이	20대	9 (3.7)	교육수준	중졸 이하	5 (2.0)
	30-40대	198(81.5)		고졸	62(25.0)
	50세 이상	36(14.8)		대졸 이상	181(73.0)
소득수준	100만 원 미만	12 (4.9)	결혼기간	5년 이하	41(16.5)
	100-300	162(65.9)		6-10년	76(30.6)
	300만 원 이상	72(29.3)		11-20년	95(38.3)
21년 이상				36(14.5)	
종교	있음	133(53.8)			
	없음	114(46.2)			

100-3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162명(65.9%)으로 가장 많으며, 300만원(29.3%), 100만원 미만(4.9%)의 순으로 전체적으로 중류층 이상이 많이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181명(73.0%)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의 경우 11-20년이 95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6-10년의 경우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 측정도구

1) 혼외관계 개념 및 경험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개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측정하기 위해서 '귀하가 생각하는 혼외관계(외도, 바람)란 어떤 것이지요'에 대하여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는 없으나 지속적인 데이트 또는 정신적·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했을 경우'의 둘 중 한 문항만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혼외관계 경험은 혼외의 성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결혼 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性)경험이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 '없다'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2) 개인적·관계적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전병재(1974)가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90$).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아이젠크 충동성 검사(Eysenck, 1984) 척도를 기초로 하여 이현수(1985)가 번안한 것 중 본 연구에 적합한 8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5$). 개방성 측정도구는 이유정(1994)이 번역한 Costa와 McCrae(1992)의 NEO 성격질문지 개정판(NEO PI-R) 중 한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개방성 척도만을 뽑아서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 8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78$).

결혼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Roach, Fraizer & Bowden(1981)의 MMS(Marital Satisfaction Scale)의 척도를 최규

런(1988)이 재구성하였고, 이 중 본 연구에 적합한 8개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89$). 성생활 만족도 측정은 Hudson과 동료들(1981)이 개발한 성생활만족도 지수인 ISS(Index of Sexual Satisfaction) 중 김연(2001)이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10개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75$).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PC-WIN 10.0을 이용하여 기혼남성이 인식하는 혼외관계의 의미와,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χ^2 를 사용하였다. 또,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은 1, 없는 사람을 0으로 코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성생활만족도를 포함한 모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치가 학문적 우려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혼남성이 인식하는 혼외관계에 대한 개념

기혼남성이 인식하는 혼외관계 개념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성관계는 없어도 친밀한 관계인 경우도 혼외관계로 인식한다는 남성이 52.3%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만 혼외관계로 인식하는 남성(47.7%)보다 약간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남성이 갖고 있는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뿐만 아니라, 성관계가 없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혼외관계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표 2>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개념인식

		N(%)	
구분		계	χ^2
개념 인식	결혼 후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114(47.7)	.51
	결혼 후 다른 이성과 성관계는 없으나 지속적인 데이트 또는 정신적·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했을 경우	125(52.3)	
전체		239(100)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요소가 없는 정서적 관계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다소 당당하게 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쉬우며 용인하려는 경우가 있다(전요섭, 2002). 그러나 혼외관계를 파악할 때 부부관계에 미칠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결과와 더불어 정서적인 부분까지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혼외관계 개념을 성적 관계 또는 정서적 관계 어느 한쪽만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성적 관계와 정서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했을 때 부부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릴 소지가 있는 모든 혼외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59.5%가 혼외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5%가 혼외관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8년 전 조사된 결과(남은주, 1998; 49.0%)나 최근의 조사 결과(양다진·조희선, 2005; 46.2%)와 숫자상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의 실상을 유사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율을 다른 사회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위를 차지해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남성의 65%가 혼외정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조사가 실시된 한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4개국과 홍콩 가운데 가장 혼외정사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동아일보, 2001. 3. 14.).

이와 같은 경향은 성 개방 풍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 다양한 성문화가 전개될 것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가치관 변화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나타날 혼외관계 문제의 예방과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3.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 그리고 관계적 특성 변인을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 N(%)

구분	N(%)		
	있다	없다	전체
혼외관계 경험유무	147(59.5)	100(40.5)	247(100)

<표 4>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독립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사회인구학적 특성	소득수준	.21	1.54	1.23	.27	2.38	1.31	.34	3.47	1.40
	교육수준	.04	.06	1.04	.06	.16	1.06	.04	.07	1.04
	종교(있다=1)	-.60*	4.37	.55(1.81)	-.57*	3.57	.57(1.75)	-.51	2.75	.60
	결혼기간	.41**	6.60	1.50	.51**	9.36	1.67	.55***	10.14	1.73
개인적 특성	자아존중감				-.16	.37	.85	.26	.71	1.29
	충동성				.75***	12.78	2.12	.54**	5.88	1.71
	개방성				.57*	3.95	1.77	.68*	5.10	1.98
관계적 특성	결혼만족도							-.51*	4.09	.60(1.66)
	성생활만족도							-.75*	4.18	.47(2.12)
-2LL		307.65			286.69			275.06		
Cox & Snell R ²		.05			.13			.18		
Nagelkerke R ²		.07			.18			.24		
chi-square		13.05**			34.01***			45.64***		

*p<.05 **p<.01 ***p<.001

- 계수(B)가 음수인 경우에는 Exp(B)가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준거범주를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참고적으로, 바뀐 준거범주의 Exp(B)를 계산하는 식은 '1/원래준거범주의 Exp(B)'이다.

먼저 모델 1에서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만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와 결혼기간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량은 7%에 지나지 않았다.

모델 2에서 남성의 개인적특성을 첨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으로는 모델 1과 같이 종교와 결혼기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개인적특성 중 충동성과 개방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남성의 개인적특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해주었다. 즉 남성의 충동성과 개방성이 클수록 혼외관계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개인적특성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이 11% 증가하여 모델 2의 총설명력은 18%였다.

모델 3에서 남성의 부부간의 관계적특성을 첨가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 중 유의한 변인이었던 종교는 무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결혼기간은 계속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있었고, 남성의 개인적특성들 즉, 충동성과 개방성도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있었다. 관계적특성 중 결혼만족도와 성만족도가 첨가되어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은 부인과의 결혼만족도와 성만족도(-.75)가 낮을수록 증가되었다. 부부간의 관계적특성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6% 증가하여 모델의 총 설명력은 24%였다. 즉,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생활만족도, 개방성, 결혼기간, 충동성, 결혼만족도 순으로 나타나 성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개방성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성생활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생활스트레스가 남성의 혼외관계의 가능성을 높인다(변주혜, 2002)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개인내적 특성 중 하나인 개방성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김에순(1993)의 보고에 따르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젊은 시절에는 방황과 폭넓은 경험으로 표현되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감정과 경험에 대한 적극적 표현, 기존의 삶과 가치에 대한 수정의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개방성이 높은 기혼남성들이 가족 이외의 곳에서 이 같은 의지와 표현을 보였을 때, 또한 혼외관계와 관련된 다른 요인이 개방성과 함께 작용했을 때 자칫 부부의 문제가 혼외관계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기혼남성은 개방적인 성향과 함께 감정과 충동에

휩쓸려 혼외관계를 맺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성이 높을수록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여 혼외관계를 갖기 쉽다(이영숙 외, 2000)는 보고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또 다른 개인적특성인 개방성이 높은 사람 못지않게 일시적으로 혼외관계에 심취하고 금방 그 관계에 싫증을 내고 또 다른 관계를 찾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라 하겠다.

결혼기간은 세 번째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외관계 경험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남은주, 1998; 양다진·조희선,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혼년수가 증가하는 것은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연령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세대간 성의식의 보수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결혼초기의 부부보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시기가 중년기임을 고려하여볼 때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부문제를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이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부부관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결혼만족도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혼외관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혼외관계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고하는 경향이 낮다는 보고(Greeley, 1991)와 일치한다. 또한, 이것은 결혼관계 내에서 불만족은 혼외관계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Brown, 1991; Vaughn et al., 1995)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흔히 남성의 혼외관계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것은 결혼생활에 불만 때문에 혼외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다르다. 혼외관계 경험이 높은 남성들이 낮은 남성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남성이 혼외관계를 갖는 이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는 결혼관계의 불만족이 혼외관계로 향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남성이 갖고 있는 혼외관계의 의미와 경험정도를 알아보았고,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을 결정짓는 변인

과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기혼남성 2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개념을 살펴 본 결과 성관계를 갖지 않고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혼외관계로 인식한다는 남성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만 혼외관계로 인식하는 남성보다 약간 많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부부간에 성적인 관계 못지않게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이 가정유지의 주요한 기반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인 동시에, 혼외관계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기 쉬운 정서적 관계의 포함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의 혼외관계는 성적인 관계와 정서적 관계를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경험만을 혼외관계로 보고,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이 59.5%로 조사되어 혼외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혼외관계에 관한 여러 보고들이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율을 다양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 비율이 가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인 점만은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혼외관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특성 변인이 11%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관계적 특성변인은 6%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도 적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흔히 혼외관계가 관계적인 면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원인을 돌리는 관념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즉 혼외관계를 갖는 본인의 개인적특성 즉 개방성과 충동성이 혼외관계 경험을 갖게 하는데 주 원인이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넷째,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에 미치는 일반적특성 변인 중 유의한 변인은 결혼기간이었다. 즉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외관계 경험이 많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일정 기간 결혼생활을 한 부부에게도 주어져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여 혼외관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 중 유의한 변인은 충동성과 개방성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결혼 후 혼외관계 경험율이

높다는 본 결과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여섯째, 관계적 변인으로는 결혼만족도와 성만족도 두 변인 모두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은 부인과의 결혼만족도와 성만족도가 낮을수록 증가된다는 것이다.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남성들의 결혼만족도와 성생활만족도가 혼외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흔히 남성의 혼외관계를 결혼생활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바람'이라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만족이 혼외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부부관계의 불만족이 혼외관계로 향하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본인의 개인적특성으로 자아존중감, 충동성과 개방성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사용된 척도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표집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유의한 변인이 아닌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보다 정교화된 척도에 의한 체계적인 분석과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혼외관계는 어느 한 변인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 여러 변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 외에 중요한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것이므로 혼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다 정확히 밝혀 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미묘한 심리적 차이까지 밝힐 수 있는 질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적인 관계만을 혼외관계로 보고 관련변인을 파악하였으나, 성적인 관계와 정서적 관계 모두를 포함한 혼외관계 경험과 혼외의 정서적 관계만을 혼외관계로 보는 경우는 관련 변인이 각각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된 변인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혼외관계의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추후연구에서는 혼외관계 경험의 범위에 따른 변인 파악이 다양하게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방법을 사용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코호트에 의한 영향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적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표집 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주제어 : 혼외관계, 충동성, 개방성, 결혼만족도, 성만족도

참 고 문 헌

- 고기숙(2005). 중년기 남성의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이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 57권 4호.
- 구명숙(2001).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의 경험과 성적 주체성. 신라대학교 사회 정책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국민일보 2001년 3월 19일.
- 김 연(2001). 기혼남녀의 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숙(1995)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서울, 형성사.
- 김애순(1993) 중년기 위기감(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 남은주(1998) 남녀의 외도원인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2001. 3. 14.
- 변주혜(2002). 부부의 성연구·외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다진·조희선(2005).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제 8호.
- 양옥경·이기연·박지영·이현영·김은실(2005). 혼외관계를 사유로 하는 이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 오정옥(2001). 중년기 부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정체감과 가족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경·강혜지(2006). 연인관계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 대처반응 및 성차·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 제 11권 4호
- 이영숙·박경란·전규연(2000) 혼외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유정(1994). 성격특질이 기분의 수준 및 변화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수(1985). 아이젠크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 제 5권 1호
-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전요섭(2002) 중년기 외도의 심리분석과 목회상담적 지원. *한국개혁신학논문집* 제 12권 1호
- 정대연(1992). 충동성과 공격성이 좌절상황에서의 사회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1997년 1월 5일.
- 천주현(1993) 성별에 따른 혼외성관계 허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88). 한국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4). 이혼자가 보고한 이혼사유 분석, 이혼문화.
- 한국성과학연구소(2003). 제2차 한국인의 성의식 및 성생활에 관한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rown, E. M., & M. S. W. (1991). Patterns of infidelity and their treatment. Brunner/Mazel Publishers.
- Glass, S. P. & Wright, T. L. (1992). Justification for extramarital relationships :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behaviors, and gender. *The Journal of Sex Research*.
- Greeley, A. M. (1991) *Faithful attraction; Discovering intimacy, love, and fidelity in American marriage*. New York Doherty.
- Harley, W. F (1999). *His needs her needs :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Fleming H. Revell.
- Hudson, W. Walter, Harrison, F. Dianne, & Crosscup, C. Paul(1981). A short form to measure sexual discord in dyadic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 17(2). 157-174
- McGinnis, T.(1981). *More than just a friend : The joys and disappointments of extramarital affairs*. presentice Hall, Inc.
- Morgan, S. P., Smith, H., & Gager, C.(1994). *Comparing spousal reports from th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Husband and wife reports of coital frequency*. Paper presented at 1994 Ann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 Roach, A. J., L. P. Frazier & S. R. Bowden(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No. 3.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Y Princeton University
- Shackelford, T. K. and D. M. Buss(1997). "Gues in Infide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034-1045.
- Treas, Judith and Giesen, Deirdre (2000). Sexual Infidelity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pp.48-60
Vaughin Call, Susan Sprecher, Pepper Schwartz(1995). The
Incidence and Frequency of Marital Sex in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639-652.
White, J. L., Moffit, T. E., Caspi, A., Needles, D. J., &

Stouthamer-Loeber, M (1992). Measuring impulsivit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 to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2), 192-250

(2007. 03. 13 접수; 2007. 05. 14 채택)